

# 日 오사카에 전북 문화·산업 알리다

김관영 도지사 일행, 이시카와현 합동공연·무역사절단 방문 등 전략 외교 추진... 글로벌 전북 실현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본 오사카에서 문화와 경제를 아우르는 글로벌 외교를 펼치며, 전북의 문화적 품격과 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6일부터 27일 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카와현 합동 공연, 오사카 엑스포 전북홍보관 점검, 무역사절단 격려, 재외도민 간담회 등 다각적 일정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도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전북의 전통문화와 산업 역량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지사는 첫날 이시카와현 하세 히로시 지사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양 지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과 이시카와현은 2001년 우호 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 청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하세 히로시 이시카와현 지사가 2020 도쿄올림픽 유치 추진단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올림픽 유치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튿날에는 오사카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 '이시카와의 날' 개막식에 참석해 국가무형문화재 임실필봉농악단과 이시카와 공연단의 합동공연을 축하했다. 김 지사는 전북홍보관과 문화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전북의 전통문화와 관광 매력을 현장에서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김경미 KOTRA 오사카 관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5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해 전북 홍보관을 둘러보고 임실필봉농악단과 이시카와현 토라노스케 공연팀의 합동공연 및 한국관 시찰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과 올림픽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사카 거주 재일 전북도민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며 도민 네트워크를 다졌다.

이후에는 식품·코스메틱 등 도내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 현장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

다. 일본 수출계약을 체결한 휴먼피아 코스텍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수출 성과도 확인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전북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산업 기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실증하며, 실질적 교류 확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오사카 방문은 전북이 문화·산업 동반성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해 글로벌 전북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건설업, 안전·신뢰·미래 준비 산업으로”

김윤덕 국토부장관, 건설의날 기념식서 중대재해 근절 강조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이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또한 “건설업은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중대 재해를 줄이고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을 근절하는 등 안전과 신뢰,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건설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일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안전과 관련해 공공기업이 더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AI와 로봇 같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서 청년이 찾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일터로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해의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시공을 넘어서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나아가도록 정책 금융과 수출 패키지 등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 등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회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임직원, 정부 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권희성 기자

## 국적 선사 경쟁력·수출입 물로 안정성 강화

민주 이원택 의원, 해운법 일부 개정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해운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같이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운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 법적 충돌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류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해운 공동행위는 정기선사들이 운임,

운항 일정, 선박량 등을 사전에 협의해 화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외국 대형 선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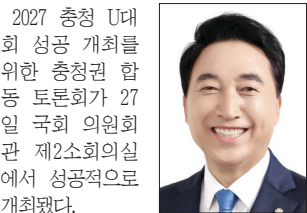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이를 답합으로 규정해 조사에 착수했고, 2022년에는 국내의 정기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도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와 수출입 화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1년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의 동맥이자 공급망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민주 박수현 의원, 충청 U대회 성공개최 토론회 개최



2027 충청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25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체육

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충청 U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요 주제는 △국제경기대회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충청 U대회를 통한 충청권 공동 발전 방향 △충청 U대회 계기 충청권 브랜드가치 제고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충청 U대회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 전북 농어업·농어촌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새정부 농업분야 국정과제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민·관·학 농정거버넌스인 '농어업·농어촌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양택 민간위원장(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백승우 전북대 농생명과학대학 교수, 농협 본부장 등 30명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농정현안과 신규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

회의에서는 새정부 농업분야 국정과제인 △국산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사회 등 4개 분야에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만호 기자



또한 전북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2025년 농업재해 복구 지원계획 설명,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 보고 등을 통해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농업소득 분과 등 7개 분과대표들이 전체 20여차례 분과회의를 거쳐 발굴한 2026년도 신규시책 24건의 사업을 공유하고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 “남은 정치적 목표, 국힘 약화·극우 정당 소멸”

사면 감사 인사차

‘책마루 해리’ 찾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오후 고창군 ‘책마루 해리’를 방문해 강력한 반(反)국민의 힘 의지를 드러냈다.

조 원장은 이날 지지자들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도상 위원장과 전북도당 당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극우 정당을 해체하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번 방문 배경에 대해 “사면 복권을 도와주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전북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6월 30일 이곳에서 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오후 고창군 ‘책마루 해리’를 방문해 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박성수 정책실장 제공)

신의 책 ‘법고전 산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가장 외로운 때 도움을 준 곳이라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8월 조국혁신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고창서 도당 당원들과 간담회

당에 입당한 유기상 전 고창군수가 참석해 주축을 받았다. 유 전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현 심덕섭 고창군수에게 815표(2.44%) 차이로 아쉽게 낙선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자신과 가족이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며 “남은 정치적 목표는 국민의힘의 약화와 극우정당 소멸에 두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조 원장은 창녕조씨 고창 종친회장과 전북 종친회장도 만나 사면 축하 인사를 받았다.

지역 정치에서는 이번 방문이 표면적으로는 사면 감사 인사지만, 실제로는 유기상 전 군수 등 지역 출마 예정자 격려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조국 원장은 28일 익산 원불교 총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강태창 도의원, 도민 고충

민원 해소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다음달 5일에 개최하는 제4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현 조례에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13명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를 한층 더 제고하는 데 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독립군 항일투쟁 재조명... 80주년 광복의 가치 되새기다

도·도의회,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단체관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CGV 서전주점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단체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되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추진됐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부터 국민 누구나 영화·공연·전시·박물관 등을 할인 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대표 정책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단체관람을 통해 직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영화관 이용을 촉진해 문화소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관람에는 박정규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CGV 서전주점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단체 관람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희수·한정수·박용근 의원 등 문안위 위원 5명과 전문위원, 이장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도청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독립군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광복의 가치를 공유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에도 뜻을 모았다.

올해 8월 개봉한 독립군은 흥행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비롯해 독립군의 무장투쟁과 국군의 뿌리를 재조명한 작품이다. 배우 조진

웅의 내레이션을 통해 항일투쟁사의 긴박한 순간들을 생생히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특히 지난 8월 1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대통령과 영화봅시다’ 행사에서도 같은 작품이 상영돼, 전국적으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